



강북구의회
GANGBUK DISTRICT COUNCIL

의정활동보도

2015년 10월 19일
(월요일)

서울포스트 1면

강북구 오동골프연습장 민간이양 사업 결정 취소 촉구

“오동골프연습장 민간이양 대상 선정은 부당”



강북구의회가 수익성과 공공성 측면에서 균형 있는 조화를 이루어온 ‘오동골프클럽연습장’을 민간이양 사업으로 결정한 행정자치부를 대상으로 결정 취소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다. 강북구의회 강선경 의원이 지난 12일 제19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서울특별시 강북구 오동골프연습장 민간이양 사업 결정 취소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에 나섰다.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오동골프클럽연습장 민간이양 사업 결정을 즉각 취소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나선 강 의원은 “행정자치부는 지난 9월 지방공기업 민간이양 사업을 확정 발표하며 민간경제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고 공공성이 낮은 16개 지방공기업의 23개 사업을 선정하고 여기에 강북구 도시관리공단에서 운영 중인 오동골프클럽연습장을 민간이양 사업 대상으로 포함하였다”며 행정자치부에서 발표한 이번 안 중 골프장 및 골프연습장 사업 금지 대상은 운영주체가 지방공기업인 곳으로만 한정하

여 국가 공기업이나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골프장이 현재 수십 곳에 달하는데도 이에 대해서는 어떠한 처리 방침도 없으며 몇몇 단체는 제외되어 힘 있는 단체장 봐주기라는 형평성 논란도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오동골프클럽연습장을 운영하고 있는 강북구도시관리공단은 끊임없는 내부 혁신으로 경영효율성을 제고하고 수익성과 공공성 측면에서 균형 있는 조화를 이루어 행정자치부가 전국 334개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5년도 사업실적 경영평가” 결과에서 전국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었다”고 설명하고 이처럼 오동골프클럽연습장을 운영하고 있는 강북구도시관리공단이 공공서비스에 대한 역량을 인정받고 우수한 경영능력을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시장성 테스트 제도”의 공공성과 경제성 지표만으로 단순하게 평가하여 민간이양 대상으로 선정하고 발표한 것은 매우 부당한 일이라며 오동골프클럽연습장 민간이양 사업 결정을 즉각 취소하기를 강력하게 촉구했다.

강선경 의원과 박문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오동골프클럽연습장 민간이양 사업 결정 취소 촉구 결의안은 10월16일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동북일보 4면

오동골프연습장 민간이양 사업 결정 취소 촉구

강 선 경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비례대표)

강북구의회(의장 김동식) 제193회 제1차 본회의에서 강선경 의원은 박문수 의원과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오동골프연습장 민간이양 사업 결정 취소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에 나섰다.

행정자치부는 지난 9월 『지방공기업 민간이양 사업』을 확정 발표하며 민간경제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고 공공성이 낮은 16개 지방공기업의 23개 사업을 선정하고 여기에 강북구 도시관리공단에서 운영 중인 오동골프클럽연습장을 민간이양



▲ 강선경 의원.

사업 대상으로 포함하였다.

특히 행정자치부에서 발표한 이번 안 중 골프장 및 골프연습장 사업 금지 대상은 운영주체가 지방공기업인 곳으로만 한정하여 국가 공기업이나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골

프장이 현재 수십 곳에 달하는데도 이에 대해서는 어떠한 처리 방침도 없으며 몇몇 단체는 제외되어 힘 있는 단체장 봐주기라는 형평성 논란도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오동골프클럽연습장을 운영하고 있는 강북구도시관리공단은 끊임없는 내부 혁신으로 경영효율성을 제고하고 수익성과 공공성 측면에서 균형 있는 조화를 이루어 행정자치부가 전국 334개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5년도 사업실적 경영평가” 결과에서 전국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었다.

이처럼 오동골프클럽연습장을 운영하고 있는 강북구도시관리공단이 공공서비스에 대한 역량을 인정받고 우수한 경영능력을 갖추었음

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시장성 테스트 제도”의 공공성과 경제성 지표만으로 단순하게 평가하여 민간이양 대상으로 선정하고 발표한 것은 매우 부당한 일이므로 오동골프클럽연습장 민간이양 사업 결정을 즉각 취소하기를 강력하게 촉구하였다.

한편 강북구의회는 결의안에서 행정자치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오동골프클럽연습장 민간이양 사업 결정을 즉각 취소할 것, 행정자치부는 후속조치로 추진하고 있는 민간이양 사업 세부 이행계획안을 즉각 폐지할 것, 행정자치부는 지방공기업 민간이양 사업 평가에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재평가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였다. <박은주 기자>

강선경·박문수 의원 공동발의

오동골프클럽연습장 민간이양 취소 촉구

강북구의회, 민간이양 사업 결정 취소 촉구 결의안 만장일치 채택

강북구의회가 수익성과 공공성 측면에서 균형 있는 조화를 이루어온 '오동골프클럽연습장'을 민간이양 사업으로 결정한 행정자치부를 대상으로 결정 취소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강선경·박문수 의원이 공동발의해 12일 강선경 의원이 제안설명에 나선 '서울특별시 강북구 오동골프클럽연습장 민간이양 사업 결정 취소 촉구 결의안'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오동골프클럽연습장 민간이양 사업 결정을 행정자치부가 즉각 취소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행정자치부는 지난 9월24일 민간경제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고 공공성이 낮은 16개 지방공기업의 23개 사업을 대상으로 '지방공기업 민간이양 사업'을 확정 발표하면서 강북구 도시관리공단에서 운영 중인 오동골프클럽연습장을 민간이양 사업대상으로 결정했다.

이에 앞서 지난 4월에는 지방공기업 구조개혁의 일환으로 공공성 11개 지표와 경제성 3개 지표 등을 기준으로 한 '시장성 테스트 제도'를 도입하여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들이 전국의 지방공사·공단을 대상으로 민간영역을 침해하는 사업에 대하여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이 시장성 테스트는 민간이 잘 할 수 있는 부분은 민간에 매각하고, 지방공기업은 본연의 공공서비스 제공에 집중해 국가 전체적으로 비효율을 제거하고 최종적으로는 민간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좋은 취지로 도입된 제도이다.

강선경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행정자치부에서 이번에 발표한 '지방공기업 민간이양 사업'은 지방공기업 사업 영역이 과도하게 시장성을 해치고 있다는 뚜렷한 근거도 제시하지 못했으며 매각 방식에 따른 민간이양을 추진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정확한 매각금액도 산출하지 않고, 매각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어떠한 자료도 제시하지 않은 채 명확한 법적 근거도 없이 단순히 '시장성 테스트 제도'라는 평가 방법으로 민간이양 대상을 일방적으로 선정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행정자치부에서 발표한 골프장 및 골프연습장 사업 금지 대상은 국가 공기업이나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골프



강선경 의원



박문수 의원

장이 현재 수십 곳에 달하는데도 이에 대해서는 어떠한 처리 방침도 없으며 운영주체가 지방공기업인 곳으로만 한정하여 몇몇 단체는 제외되어 힘 있는 단체장 봐주기라는 형평성 논란도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이다.

아울러 오동골프클럽연습장이 민영화가 되면 공공서비스와 달리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서비스를 기피하여 레저 활동에서도 소외계층이 발생하게 되고, 영리만을 추구하는 기업의 특성상 이용료금은 오를 수밖에 없어 지역 주민들이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하게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오동근린공원 내에 설치된 오동골프클럽연습장은 골프를 많이 접하지 못한 강북구 지역주민들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하여 건전한 레저 활동과 체력증진에 크게 기여하며 큰 호응을 얻고 있고 강북구도시관리공단은 그동안 끊임없는 내부 혁신으로 경영효율성을 제고하고 수익성과 공공성 측면에서 균형 있는 조화를 이루어 행정자치부가 전국 334개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5년도 사업실적 경영평가' 결과에서 전국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강선경 의원과 박문수 의원은 "이처럼 오동골프클럽연습장을 운영하고 있는 강북구도시관리공단이 공공서비스에 대한 역량을 인정받고 우수한 경영능력을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시장성 테스트 제도'의 공공성과 경제성 지표만으로 단순하게 평가하고, 또한 세부 평가 결과는 지방자치단체에 통보도 없이 민간이양 대상으로 선정하여 발표한 것은 매우 부당한 일이므로 오동골프클럽연습장 민간이양 사업 결정을 즉각 취소하기를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오동골프장 민간이양 취소 촉구

임시회서 결의안 채택, 공단 우수한 경영능력에 이양 결정은 형평성 위배
강선경 의원, “공공성과 경제성 지표 단순 평가로 민간이양 대상은 부당”

강북구의회가 12일 열린 193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강선경 의원과 박문수 의원이 공동 발의한 '강북구 오동골프클럽연합습장 민간이양 사업 결정 취소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강북구의회가 이번 결의안을 채택한 것은 행정자치부가 지난 9월『지방공기업 민간이양 사업』을 확정 발표하며 민간경제를 위촉시킬 우려가 있고 공공성이 낮은 16개 지방공기업의 23개 사업을 선정하고 여기에 강북구도시관리공단이 운영 중인 오동골프클럽연합습장을 민간이양 사업 대상으로 포함시켰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제안설명에 나선 강선경 의원은 “행정자치부에서 발표한 이번 안 중 골프장 및 골프연합습장 사업 금지 대상은 운영주체가 지방공기업인 곳으로만 한정하여 국가 공기업이나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골프장이 현재 수십 곳에 달하는데도 이에 대해서는 어떠한 처리 방침도 없으며 몇몇 단체는 제외되어 힘 있는 단체장 봐주기라는 형평성 논란도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오동골프클럽연합습장을 운영하고 있는 강북구도시관리공단은 내부 혁신을 통해 경영효율성을 제고하고 수익성과 공공성 측면에서 균형 있는 조화를 이뤄 행정자치부가 전국 334개 지방공기업에 대상으로 실시한 '2015년도 사업실적 경영평가' 결과에서 전국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다.

강 의원은 “이처럼 오동골프클럽연합습장을 운영하고 있는 강북구도시관리공단이 공공서비스에 대한 역량을 인정받고 우수한 경영능력을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시장성 테스트 제도'의 공공성과 경제성 지표만으로 단순히 평가해 민간이양 대상으로 선정하고 발표한 것은 매우 부당한 일”이라며 오동골프클럽연합습장 민간이양 사업 결정을 취소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다음은 결의안 전문.

행정자치부는 금년 9월 24일 민간경제를 위촉시킬 우려가 있고 공공성이 낮은 16개 지방공기업의 23개 사업을 대상으로『지방공기업 민간이양 사업』을 확정 발표하면서 서울특별시 강북구도시관리공단에서 운영 중인 오동골프클럽연합습장을 민간이양 사업대상으로 결정하였다.

이에 앞서 지난 4월에는 지방공기업 구조개혁의 일환으로 공공성 11개 지표와 경제성 3개 지표 등을 기준으로 한 '시장성 테스트 제도'를 도입하여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위원들이 전국의 지방공사·공단을 대상으로 민간영역을 침해하는 사업에 대하여 전수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시장성 테스트는 민간이 잘 할 수



강선경 의원이 오동골프클럽연합습장 민간이양 사업 결정 취소 촉구 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있는 부분은 민간에 매각하고, 지방공기업은 본연의 공공서비스·제공에 집중해 국가 전체적으로 비효율을 제거하고 최종적으로는 민간경제의 활성화에 기여 한다는 좋은 취지로 도입된 제도이다.

물론 공기업 민영화는 경쟁을 통해 서비스 품질의 향상과 공기업의 경영효율성을 확보하여 자연독점으로 인한 수익성 약화와 공기업 경영상의 비효율을 개선하는 좋은 효과도 가지고 있으며, 최근 정부재정의 축소와 민간경제의 활력을 제고하고자 민영화를 장려하는 것이 선진국을 비롯한 세계적인 추세이다. 그러나 행정자치부에서 이번에 발표한 '지방공기업 민간이양 사업'은 지방공기업 사업 영역이 과도하게 시장성을 해치고 있다는 뚜렷한 근거도 제시하지 못했으며 매각 방식에 따른 민간이양을 추진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정확한 매각금액도 산출하지 않고, 매각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어떠한 자료도 제시하지 않은 채 명확한 법적 근거도 없이 단순히 '시장성 테스트 제도'라는 평가 방법으로 민간이양 대상을 일방적으로 선정하였다.

특히 행정자치부에서 발표한 이번 안 중 골프장 및 골프연합습장 사업 금지 대상은 운영주체가 지방공기업인 곳으로만 한정하여 국가 공기업이나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골프장이 현재 수십 곳에 달하는데도 이에 대해서는 어떠한 처리 방침도 없으며 몇몇 단체는 제외되어 힘 있는 단체장 봐주기라는 형평성 논란도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 강북구는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서도 재정자립도가 매우 낮고 강남권역에 비해 사회적 기반시설 등이 낙후되고 열악한 형편이지만, 생활양식의 변화로 늘어나는 여가 시간에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누구나 체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공공체육시설과 체육활동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오동골프클럽연합습장이 민영화가 되면 공공서비스와 달리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서비스를 기피하여

레저 활동에서도 소외계층이 발생하게 되고, 영리만을 추구하는 기업의 특성상 이용요금은 오를 수밖에 없어 지역 주민들이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하게 될 것이다.

천혜의 자연환경을 가진 오동근린공원 내에 설치된 오동골프클럽연합습장은 고급 스포츠로 인식되어 골프를 많이 접하지 못한 강북구 지역주민들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하여 건전한 레저 활동과 체력증진에 크게 기여하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또한 오동골프클럽연합습장을 운영하고 있는 강북구도시관리공단은 끊임 없는 내부 혁신으로 경영효율성을 제고하고 수익성과 공공성 측면에서 균형 있는 조화를 이루어 행정자치부가 전국 334개 지방공기업에 대상으로 실시한 '2015년도 사업실적 경영평가' 결과에서 전국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었다. 이처럼 오동골프클럽연합습장을 운영하고 있는 강북구도시관리공단이 공공서비스에 대한 역량을 인정받고 우수한 경영능력을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시장성 테스트 제도"의 공공성과 경제성 지표만으로 단순히 평가하고, 또한 세부 평가 결과는 지방자치단체에 통보도 없이 민간이양 대상으로 선정하여 발표한 것은 매우 부당한 일이므로 오동골프클럽연합습장 민간이양 사업 결정을 즉각 취소하기를 강력하게 촉구하며 이에 강북구의회 의원 일동은 오동골프클럽연합습장 민간이양 결정 취소 촉구를 위해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첫째, 행정자치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오동골프클럽연합습장 민간이양 사업 결정을 즉각 취소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둘째, 행정자치부는 후속조치로 추진하고 있는 민간이양 사업 세부이행계획안을 즉각 폐지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셋째, 행정자치부는 지방공기업 민간이양 사업 평가에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재평가하기를 강력하게 요구한다.

2015. 10.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 일동